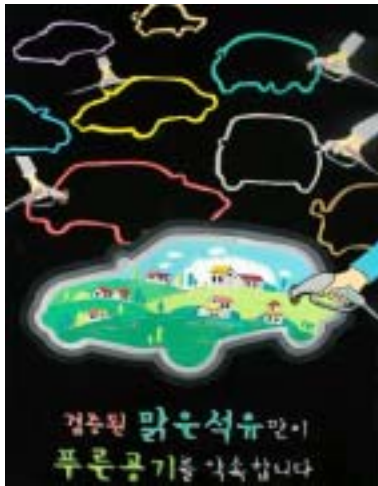


유사석유 추방결의대회 10월25일 COEX 개최

산업자원부는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최근 고유가로 석유제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 석유제품 근절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2회 유사석유 추방결의대회>를 10월 25일 14시 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스터

2007 에너지주간(10월 22-25일)을 맞아해 경찰청·소방방재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해 유사석유 단속사례, 위험성, 용제수급상황시스템운영, 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유사 석유제품 추방 협약식, 3NO 운동(유사 석유 안 만들기·안 팔기·안 쓰기)확산 선포식, 관련 유공자 포상 및 표어·포스터 우수작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유사 석유제품 추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 확산을 위해 전국 중·고·대학생대상으로 실시한 유사석유제품 추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에서 350여점 이상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7월28일부터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처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처벌 시행일 이후 제조 판매행위 특별합동단속과 병행해 유사 석유제품 수요를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길거리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약 75%가 감소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행사를 계기로 유사 석유제품 제조원료인 용제 집중관리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사 석유제품 완전한 추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0/24>